

'아름함께' 동체대비심 내자

구제역 파동...잇단 산불

삶의 터 잃은 사람들

잔인한 불이다. 꺼질 줄 모르는 산불은 여러 마을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었고, 구제역 파동으로 많은 축산농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다.

12일 현재 삼척, 고성, 강릉 등지에서 번지고 있는 사상 최대의 산불로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고 학교가 휴교를 하는가 하면 교통이 통제되는 등 곳곳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강릉~속초간 일부 도로는 승용차와 트럭, 경운기에 보따리를 싣고 이동하는 노인들과 소를 끌고 나온 사람들이 이해 마쳐 피난 길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가축도 비닐하우스도 흔적없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재도구를 잃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이밖에도 산불은 마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전국 곳곳의 산들이 타 들어가고 주민들은 부랴부랴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시커멓게 그을린 산림도 그렇지만 산불발생 지역의 우리 이웃들 마음도 타 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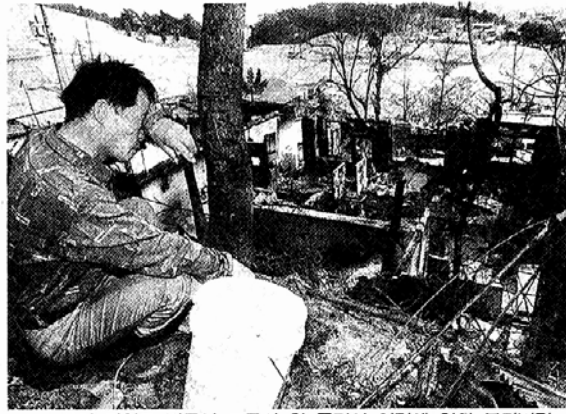
이미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전북 김제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 폭 떨어져 축산농가들은 울상만 짓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두 차례 큰 수해를 입었던 파주지역의 경우는 아예 '사람이 못살 곳'이 돼 버렸다. 축사는 불타고 마을은 폐허로

변했다. 자식처럼 키워오던 소를 도축현장까지 따라가 지켜본 농민들엔 '악몽'이 따로 없었다. 홍성도 마찬가지다.

몇몇 군(郡)은 같은 도(道)에서 발생한 '재앙' 인데도 전원이 우려된다며 구제역 발생지의 가축반입을 거부해 수매가 전면 중단되는 등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이끼주의도 멎은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앞장서 나서고 있는 있지만 이들이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절실하다. '잔인한 4월'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12일 강원도 강릉시 교동의 한 주민이 연덕에 앉아 불타버린 집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있어야만 한다. <유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문수보살은 앉아 누워 있는 유마를 문병하기 위해 여러 대중들과 같이 그에게 문안했다.

"병환은 좀 '어떠십니까? 부처님 계셔도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병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나아 수 있을까요?"

유마할이 답했다.

"모든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습니다. 만약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혹

의 세계가 있으면 병도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일어납니다."

이웃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보살이다.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내 몸처럼 슬퍼한다는 것, 그와 같은 사랑을 가리켜 동체대비(同體大悲)라고도 한다. 세상이 앓고 있는데 나 혼자 건드릴 수는 없다.

현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정녕 4월은 사(死)월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산불은 우리를 찾았고 그 피해는 참담할 정도다.

연례행사...대형화 심각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강원 영동지역의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며 아직도 화마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이다. 참으로 비통하고 근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12일까지 집계된 피해면적만 산림 1만여 ha와 주택 500채, 그리고 17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니 과학기술의 발달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요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산불을 원상대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말문이 막히며, 생태계 파괴에 따른 또 다른 자연재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0,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나라의 산불 역사를 보면 이 당시의 산불은 주로 민심혼란이나, 벌채허가 등과 관련된 방화산불이 주였으며, 70년대는 화전이 산불의 주요인으로 74년도부터 실시된 화전정리 57년 사업과 방화선 설치 및 입화(入火) 신고제를 통해 산불예방을 하였다. 80, 90년대 이후는 사회전반의 경제사정의 호전과 생활환경악화에 따른 입산객들의 증가로 매년 산불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 그동안 우리 나라 산불의 원인은 사람에 의한 것으로 100% 인재(人災)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우리 나라는 기후적으로 보아 외국에서와 같이 낙엽이나 수목가리의 마찰에 의한 자연발화의 산불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불의 특성은 점점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그 양상도 산림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 가축,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난 96년 강원도 고성 지역의 산불과 올해 강원도 영동지역의 산불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산불을 수십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치른 탓에 그 원인부터 시작해 특성과 진화방법, 사후 대책, 예방방법, 외국 사례까지도 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불의 발생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그 결과는 대형화로 인한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이어지는데도 늘상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묻기만 한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실천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산불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까지 나온 산불예방의 방법을 보면 산불에 대한 국민적 애도 및 홍보활동, 산불위험예보제, 공공감시강화와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국민운동, 농산촌의 논두렁 등에 대한 입화(入火)금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이상 가는 예방책은 없다.

그러나 7일부터 시작된 강원 영동지역의 산불은 군 부대와 농촌에서의 쓰레기소각이 원인이며 특히 13일의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방화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앞에서 언급한 예방의 방법들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불 예방법 중로 민심혼란이나, 벌채허가 등과 관련된 방화산불이 주였으며, 70년대는 화전이 산불의 주요인으로 74년도부터 실시된 화전정리 57년 사업과 방화선 설치 및 입화(入火) 신고제를 통해 산불예방을 하였다. 80, 90년대 이후는 사회전반의 경제사정의 호전과 생활환경악화에 따른 입산객들의 증가로 매년 산불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 그동안 우리 나라 산불의 원인은 사람에 의한 것으로 100% 인재(人災)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우리 나라는 기후적으로 보아 외국에서와 같이 낙엽이나 수목가리의 마찰에 의한 자연발화의 산불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불의 특성은 점점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그 양상도 산림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 가축,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난 96년 강원도 고성 지역의 산불과 올해 강원도 영동지역의 산불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산불을 수십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치른 탓에 그 원인부터 시작해 특성과 진화방법, 사후 대책, 예방방법, 외국 사례까지도 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윤화영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산불 예방법 중로 민심혼란이나, 벌채허가 등과 관련된 방화산불이 주였으며, 70년대는 화전이 산불의 주요인으로 74년도부터 실시된 화전정리 57년 사업과 방화선 설치 및 입화(入火) 신고제를 통해 산불예방을 하였다. 80, 90년대 이후는 사회전반의 경제사정의 호전과 생활환경악화에 따른 입산객들의 증가로 매년 산불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 그동안 우리 나라 산불의 원인은 사람에 의한 것으로 100% 인재(人災)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우리 나라는 기후적으로 보아 외국에서와 같이 낙엽이나 수목가리의 마찰에 의한 자연발화의 산불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불의 특성은 점점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그 양상도 산림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 가축,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난 96년 강원도 고성 지역의 산불과 올해 강원도 영동지역의 산불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산불을 수십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치른 탓에 그 원인부터 시작해 특성과 진화방법, 사후 대책, 예방방법, 외국 사례까지도 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할인점 '눈가리고 아웅'

대용량이 소용량보다 10% 비싸

<우바세계경>에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랑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는 말이 있다. 또 <백유경>은 "장사하면서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니 일은 비록 성취하지만 그 이익은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알이 빠지는 것과 같다"며 그릇된 상도의 업보를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 있다. 바로 '속임수 판매'를 해온 대형할인점들이다. 수도권 신도시와 주변지역 할인점에서 같은 품목의 소용량 제품보다 대용량 제품의 단위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소비자정보보호센터가 10일 발표한 '할인점 단위 가격 분석자료'에 따르면 같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의 단위가격이 소용량에 비해 대용량제품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한 할인점은 400g짜리 치즈의 10g당 단위가격이 76원이었으나 1.8kg짜리는 이보다 10.5%나 비싼 84원으로 조사됐고, 분당의 어느 할인점은 0.9l 들이 식용유의 100ml 당 단위가격이 206원 이었으나 1.5l 들이의 단위가격은 218원으로 5.8%나 비쌌다.

이밖에도 수도권 여러 할인매장에서 같은 회사제품의 설량, 참기름, 마요네즈 등이 대용량의 경우 소용량보다 단위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용량 제품이 소용량보다 싸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용량 제품이 비싼 것은 명백한 사기판매다. 속임수 판매를 하는 할인점도 반성해야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목이 필요하다.

서울(http://econo.metro.seoul.kr), 인천(http://tonggu.jnc.kr), 성남(http://songnamshi.kyonggi.kr) 등의 구청, 통사무소, 소비자보호단체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물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 수백만명 매년 고문으로 희생

세계고문반대기구 발표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고문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세계고문반대기구(OMCT)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세계고문반대기구는 10일 세계 30여개국

에서 어린이 고문 피해사례 2169건이 공식 보고됐으며, 유괴, 강간, 처형, 강제노동, 성적 학대, 구타, 살해, 음식물 안 주기, 임의 구금 등으로 해마다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문반대기구는 "이번 보고서가 어린이 피해상황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브라질, 바레인,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들의 고문사건을 기록했을 뿐, 어린이 인권유린이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많다. <아난사사경>에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고, <육방예경>이나 <장야합경> 등 많은 경전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사회의 도리에 대해 설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떤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호주 노동단체 국경초월 '자비실천'

호주의 한 노동단체가 국경을 초월한 '자비'를 실천하고, 그 은혜를 입은 유족이 다시 사회에 '자비'를 베풀어 감동을 주었다.

현지에서 불법체류하다, 그것도 근무시간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7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내 이를 한국에 직접 찾아와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자 유족은 즉석에서 1천4백만원을 우리 건설산업연맹과 호주 건설노조, 민족교육문화원쪽에 똑같이 나누어 전달했다.

10일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한 앤드류 퍼거슨 호주 건설노조 뉴사우스웨일스 지부 사무총장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광석보리시론>에 이런 얘기가 있다.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천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 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시방의 온갖 중생을 두루 살펴 본 끝에 한 중생이라도 괴로움을 지닌 자를 보았을 때는 자식같이 사랑하여 대신해 괴로움을 받음으로써 그 중생이 괴로움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준다."

국경을 초월해 자비를 베푼 호주 노동단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시대의 보살이 아닐까.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소 라즈니쉬 경의 손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경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소 라즈니쉬 경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오소의 법구경 강하는 방금 전져 울린 뚝고치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뜻'을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옅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것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일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 | | | | | | |
|----------------|------------|---------------------|-------------------------|------------------------------|-------------------------|
| 01. 탄트라 經典 I | 05. 법구경 I | 09. 탄트라 대외의 계량음 | 13. 대대 가슴속의 꽃을 피우라 I | 17. 오직 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음 뿐 I 조주 | 21. 내 사랑 인이다 |
| 02. 탄트라 經典 II | 06. 법구경 II | 10. 신유도 | 14. 대대 가슴속의 꽃을 피우라 II | 18. 형민 가슴을 넘어서 I 남진 | 22. 소중한 비밀 I 까비리 강론 |
| 03. 탄트라 經典 III | 07. 금강경 | 11. 신심명 | 15. 釋. 빈 거울에 담긴 노래 I 미조 | 19. 법의 연꽃 I 이규 |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
| 04. 탄트라 經典 IV | 08. 반야심경 | 12. 하단 연꽃을 피우라 I 경원 | 16. 마음을 버려라 I 임제 | 20. 釋의 최고봉 I 백경과 대주 | 24. 사랑의 뜻다 I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 색의 책은 출판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l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라이프타임
리플렛